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결산
-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IV. 이벤트 및 행사
- V. 시상
- V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VII.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 VIII.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 결산
- IX.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I. 개요

1. 기본 개요

- 기간: 2014년 10월 2일(목) ~ 11일(토)
- 79개국 312편 상영
- 상영관: 7개 극장 33개관(마켓과 비공식 상영작 상영관 제외)
 - ✓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GV센텀시티, 영화의전당,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 해운대: 메가박스 해운대
 - ✓ 남포동: 메가박스 부산극장

2. 총 관객수: 226,473명

3.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96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36편

4. 아시아필름마켓

- 마켓배지: 총 51개국 796개 업체, 1,566명(전년대비 배지등록자 23% 증가)
- 세일즈부스: 총 24개국, 195개 업체, 109개 부스(BIFCOM 포함)
- 마켓 스크리닝: 총 15개국, 47개 업체, 84편, 96회 상영(마켓 프리미어 67편, 전년대비 7편 증가)
- 온라인 스크리닝: 총 297편(영화제 상영작 202편 포함)

5. 아시아영화펀드

-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파트너 영입
- 아시아다큐멘터리네트워크(AND) 대외 협력 확대

6.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

- 참관객: 750명(컨퍼런스 382명, 포럼 368명)
- 유료참가자(컨퍼런스 배지/포럼 패스 구입자): 191명

7. 아시아영화아카데미

- 펠로우: 17개국 24명
- 교장: 벨라 타르(헝가리)
- 교감: 오석근(한국)
- 연출 지도 교수: 송일곤(한국)

II. 결산

1. 역대 최다 관객 동원

지난 2012 년 역대 최다 관객동원 기록인 221,002 명을 뛰어넘는 226,473 명의 관객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관객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 관람층과 관람 서비스 대폭 확충

시네키즈 부문 신설, 배리어프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실시 등 관람층과 관람서비스 대폭 확충으로,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노력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3. 새로운 작가 발굴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이라크, 레바논,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세계무대에서 소외된 지역의 뛰어난 작가들을 대거 발굴하여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재능의 등용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4. 아시아필름마켓, 글로벌 비즈니스의 영역 확장

부스 및 참가자의 역대최고기록 갱신뿐 만이 아니라, 미주, 유럽권 특히 중국권 참가자들의 대폭 증가로 아시아필름마켓이 글로벌 필름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5. AFA 10 년의 성과

아시아영화인재를 양성하는 AFA 가 10 년을 맞아 과거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10 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입안함으로써 제 2 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다.

6. 영화사의 새로운 정립과 영화 담론의 장 활성화

정진우 감독 회고전, 터키 특별전, 조지아 여성 감독 특별전 등 한국은 물론 세계영화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다양한 회고전 및 특별전과 인문학과 영화가 만나는 컨퍼런스와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됨으로써 영화담론의 장이 활성화되었다.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 |
|----------|---------|
| - 총 참석인원 | 10,173명 |
| 국내 | 3,362명 |
| 해외 | 775명 |
| 시네필 | 1,429명 |
| 마켓 | 1,566명 |
| BC&F | 750명 |
| 프레스 | 2,291명 |

*마켓의 경우,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한 배지 발급자에 한함

IV. 이벤트 및 행사

- 마스터클래스 2회 / 핸드프린팅 3회 / 특별대담 2회
- 오픈토크 5회 / 야외무대인사 23회
- 아주담담 5회
- 야외무대공연 5회
- 짧은 영화, 긴 수다 4회
- 시네마투게더 12팀
- 관객과의 대화(GV) 310회
- 기자회견 총 8회
- 개별인터뷰 총 284회

V.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철원기행> / 김대환(한국)

심사평:

우리는 만장일치로 뉴 커런츠 수상작으로 김대환 감독의 <철원기행>을 뽑았습니다. 영화적 공간을 우아하게 지배, 가족관계를 능숙하게 더듬으면서 <철원기행>만의 스타일로 일관성 있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돋보이는 앙상블 연기가 감명을 주었습니다.

수상작: <13> / 호우만 세예디(이란)

심사평:

다수의 심사위원이 호우만 세예디의 <13>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의 창의적인 카메라 작업, 고도의 기술적인 완성도와 패기는 차기작을 기대하게 합니다.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아스가르 파르하디(감독 / 이란)

- 심사위원: 봉준호(감독 / 한국)

디나 이오르다노바(교수 / 영국)

수하시니 마니라트남(배우 / 인도)

자크 랑시에르(철학자 / 프랑스)

2. 비프메세나상

(아시아)수상작: <스톱 메이커> / 기욤 수온(캄보디아)

심사평:

<스톱 메이커>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미묘한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처럼 고통과 슬픔은 더 큰 고통과 슬픔을,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삶을 우리는 밀접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수상작: <붕괴> / 문정현, 이원우(한국)

심사평:

<붕괴>는 현대생활의 두려움에 관한 에세이 영화입니다. 한국사회에 대한 감독의 개인적인 우려를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감독에게 예술과 인생은 하나입니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마리아 본산티(시네마 뒤 릴 집행위원장 / 프랑스)

탄핀핀(감독 / 싱가포르)

이승준(감독 / 한국)

3. 선재상

(아시아)수상작: <사십세개의 계단> / 매트 우(대만)

심사평:

아시아단편 경쟁 부문 선재상 수상작으로는 어린 소년과 할머니 사이의 가까운 순간들을 포착한 영화, 매트 우의 <사십세개의 계단>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수상작: <그날 밤> / 최기윤(한국)

심사평: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유려하게 풀어낸 연출력과 함께 김예은 배우의 훌륭한 연기력이 돋보이는 최기윤 감독의 <그날 밤>을 한국단편 경쟁 부문에서 선재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재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이시이 유야(감독 / 일본)

더그 존스(Images Cinema 운영위원장 / 미국)

박정범(감독 / 한국)

4.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남자배우상

<거인> / 최우식(한국)

심사평:

최우식은 때문지 않은 맑은 눈을 가진 배우입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많은 잠재력을 가진 배우라 생각해 그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올해의 여자배우상

<들꽃> / 조수향(한국)

심사평:

조수향은 정말 거리의 아이 같은 리얼한 연기가 돋보인 배우입니다. 참신한 얼굴을 지닌 그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김희애(배우 / 한국)

유지태(배우, 감독 / 한국)

5. 대명컬처웨이브상

수상작: <거짓말> / 김동명(한국)

심사평:

보편적 주제를 뛰어난 블랙코미디로 승화시킨 연출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대명컬처웨이브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방준석(음악감독 / 한국)

김동현(감독 / 한국)

김동우(유비유필름 대표 / 한국)

6.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작: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 / 샤피 야즈다니안(이란)

심사평:

강렬하고 잘 짜여진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완성도에 주목했으며,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넘어 영화 속에서 창의적으로 쓰여진 형식주의적인 장치들과 시공간의 구성을 발견, 심사위원단 모두가 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상적인 연기를 통해 펼쳐진 독특한 변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첸 루슈(교수 / 대만)

조르지 카르바티(영화평론가 / 헝가리)

박태식(영화평론가 / 한국)

아쇼크 레인(영화평론가 / 인도)

데니스 페터(영화평론가 / 독일)

7.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수상작: <소셜포비아> / 홍석재(한국)

심사평: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인터넷 중독에 대해ダイナミック하고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풀어냈으며, 감독은 개념상 복잡한 내용을 새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웹캠, 스카이프 등의 현대 삶의 트렌드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잘 결합시켜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파테메 모타메다리아(배우 / 이란)

굴나라 아비키예바(영화평론가 / 키르기즈스탄)

양영철(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 한국)

8. KNN 관객상

수상작: <가디> / 아민 도라(레바논)

9. BS 부산은행상

수상작: <사장님> / 세바스티안 윈델(아르헨티나)

10.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거인> / 김태용(한국)

심사평:

소외된 인물과 그를 둘러싼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태도와 담담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가 돋보였습니다.

11.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침묵의 시선> / 조슈아 오펜하이머(덴마크)

심사평:

이념의 대립이라는 문제 상황에 휴머니티 요소를 더해 관객들을 십분 공감하게끔 만들었으며, 미묘한 감정의 선들을 인상 깊게 만들어낸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였습니다.

12. CGV 무비콜라쥬상

수상작: <꿈보다 해몽> / 이광국(한국)

심사평:

실망과 절망의 연속인 삶을 웃어넘기거나 견딜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삶을 버틸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이야기의 순기능에 충실한 작품입니다. 이야기 매체로서의 영화의 본질에 충실한 이광국 감독의 재능과 자세를 응원하는 의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3. 감독조합상

수상작: <한여름의 판타지아>/ 장건재(한국)

심사평: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내용과 형식이 빛어낸 판타지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수상작: <소셜포비아> / 홍석재(한국)

심사평:

<소셜포비아>는 독립영화진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르영화의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V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마켓배지: 총 51개국 796개 업체, 1,566명(전년대비 배지등록자 23% 증가)
- 세일즈부스: 총 24개국, 195개 업체, 109개 부스(BIFCOM 포함)
- 마켓 스크리닝: 총 15개국, 47개 업체, 84편, 96회 상영(마켓 프리미어 67편, 전년대비 7편 증가)
- 온라인 스크리닝: 총 297편(영화제 상영작 202편 포함)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 2014년 프로젝트 수: 총 30편
- 젊고 유망한 신인감독의 신진 프로젝트를 대거 발굴, 투자자 및 메이저 영화제로의 등용문으로써 위상 강화

APM 프로젝트 시상 결과

- 부산상: 판당디 <만월축제> / 베트남
- 허이필름 & 요쿠 투도우 어워드: 페마 체덴 <킬러> / 중국
- CJ 엔터테인먼트 어워드: 조코 안와르 <생각의 복제> / 인도네시아
- 롯데 어워드: 정주리 <도라> / 한국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신수원 <블루선셋> / 한국, 호주, 프랑스
- 아르떼상: 데이비 추 <다이아몬드 아일랜드> / 캄보디아, 프랑스
- 편딩21 어워드: 노경태, 이우 <언익스체인저블> / 한국
- 모네프상: 장 츠 <식스티 나인> / 중국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상: 예심 우스타오글루 <키아로스쿠로> / 터키, 프랑스, 독일

VII.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1. 아시아영화펀드 2014년도 지원 내역

-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총 8편

(아시아프로젝트 4편, 한국프로젝트 3편, AFA 프로젝트 1편), 각 1천만원 지원

-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총 7편

(아시아프로젝트 4편, 한국프로젝트 3편), 후반작업 현물지원

- 다큐멘터리 AND 펀드: 총 15편

(아시아프로젝트 제작지원 9편): 3편 각 1천만원 지원, 6편 각 5백만원 지원

(한국프로젝트 제작지원 5편): 1편 2천만원, 1편 1천5백만원, 3편 각 1천만원 지원

(한국프로젝트 배급지원 1편): 1편 1천만원

※ 배급지원펀드는 영화제에 상영된 한국 다큐멘터리 9편 중에서 작품성 및 대중성을 갖춘 작품에 지원하며, 김명준 감독의 <그라운드의 이방인>이 선정되었다.

- **AND 프로그램:** 10월 6일(월) ~ 8일(수) 동안 다큐멘터리 AND펀드 수여 프로젝트 감독들과 다양한 지역 및 분야의 5명의 멘토들과 함께 강도 높은 1대1 프로젝트 클리닉을 진행하였고, 허우샤오시엔, 지아장커 감독 작품의 영화음악을 함께 해온 대만 뮤지션 임강의 특별 강연과 베니스영화제 그랑프리에 빛나는 <침묵의 시선>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과의 특별 대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2.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다변화

-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파트너 영입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파트너로 지원작의 후반작업을 함께 해 온 영화진흥위원회, CJ파워캐스트(주)아트&테크놀로지, 디지털스튜디오 2L, (주)세방SDL, 스튜디오SH, (주)웨이브랩에스티디와 함께 (주)더컬러와 (주)플러스게인 및 중국 북경의 후반작업 업체인 포레스트스튜디오(Forestt Studios)가 신규로 파트너로 참여하여 ACF의 후반작업 지원에 힘을 신게 되었다.

- 아시아다큐멘터리네트워크(AND) 대외 협력 확대

아시아다큐멘터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원작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AND는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편집과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둔 인도에서 열리는 닥웍워크숍에는 <류의 광시곡>(감독: 리 샤오핑, 지아카이)을, 다큐멘터리 피칭행사인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에는 <엄마와 나, 신녀는 홀로 걷는다>(감독: 후양 후이천)를 선정하여 참가시키기로 하였고, 작년에 체결된 타스코프스키 필름과의 'AND 타스코프스키 필름 아시아 토틀런트 펀드' 파트너십에 따라 <방직성>(감독: 왕 양)이 온라인 컨설팅을 받게 될 예정이다.

3.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극영화: 8편 (아시아 4, 한국 4)

다큐멘터리: 9편 (아시아 6, 한국 3)

* <잘랄의 이야기> | 뉴 커런츠 | 아부 사헤드 이몬 (방글라데시)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순응> | 아시아영화의 창 | 콩데이 자투란라스미 (태국)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번식기> | 아시아영화의 창 | 킴퀴 부이 (베트남)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천국의 모퉁이> | 아시아영화의 창 | 장마오옌 (중국, 프랑스)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영도> | 한국영화의 오늘 - 비전 | 손승웅 (한국)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꿈보다 해몽> | 한국영화의 오늘 - 비전 | 이광국 (한국)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들꽃> | 한국영화의 오늘 - 비전 | 박석영 (한국)

2014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산다> | 한국영화의 오늘 - 비전 | 박정범 (한국)

2010 ACF 인큐베이팅펀드

* <스툼 메이커>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 기욤 수온 (캄보디아, 프랑스)

2013 AND펀드 BIFF후원회펀드

* <닉과 차이: 가슴에 묻은 이름>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 차 에스카라 & 웨나 산체스 (필리핀)

2014 AND펀드 BIFF메세나펀드

* <위로공단>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 임흥순 (한국)

2013 AND펀드 BIFF메세나펀드

* <불안한 외출>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 김철민 (한국)

2013 AND펀드 동의시네마펀드

* <메트로폴리스의 탄생>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 과탐 손티 & 우사 라오 (인도)

2013 AND펀드 부산은행펀드

* <경계>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문정현 & 다니엘 루디 하리안토 & 블라디미르 토도로비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

2012 AND펀드 DMZ펀드

* <아워 뮤직>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와라룩 에브리 & 데이빗 리브 (태국, 영국)

2012 AND펀드 BIFF메세나펀드

* <사막을 지나는 발자국>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바라카 고쉬 (인도)

2012 AND펀드 DMZ펀드

* <마이 페어 웨딩> |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장희선 (한국)

2014 AND펀드 동의시네마펀드

Ⅷ.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 결산

1. 기간: 2014년 10월 8일(수) ~ 10일(금)

- 본행사: 10월 8일(수) ~ 10일(금), 기조강연, 세션 등

2. 장소: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컨퍼런스: 그랜드볼룸A
- 포럼: 그랜드볼룸C

3. 참가규모

- 참관객 전체: 750명 (컨퍼런스 382명, 포럼 368명)
- 유료참가자(컨퍼런스 배지/포럼 패스 구입자): 191명

4. 주제 및 프로그램

① 컨퍼런스

- 컨퍼런스: 디지털 시대의 영화 담론 (Film Discourse in the Digital Era)
- 기조발제: 우리 시대의 영화: 디지털 꿈꾸기와 영화의 마술 - 그래엄 길록
- 인문학 콘서트: 영화와 오리엔탈리즘 - 박홍규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영화 담론
- 세션 2: 랑시에르 사유에서 중심의 불편함
- 세션 3: 영화와 인문학1 : 디지털시대 영화의 수용
- 세션 4: 영화와 인문학2 : 영화 속의 인문학과 트랜스휴머니즘
- 세션 5: 영화와 신화
- 세션 6: 영화와 스포츠: 스포츠 영화의 성공 열쇠를 찾아라

② 포럼

- 세션 1: 3.11 이후 일본영화의 어떤 경향
- 세션 2: 모흐센 마흐말바프와 영화의 진리
- 세션 3: '하세편'과 차이니즈 드림
- 세션 4: 영화, 도시, 그리고 인문정신
- 세션 5: 영화독서포럼 : 영화 <명량>
- 세션 6: 영화심의기구의 민간 자율화와 그 해법
- 세션 7: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

5. 컨퍼런스 참여 및 후원기관

-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

6. 포럼 참여기관

- 일본국제교류기금, 동서대 공자아카데미, 중국영화포럼, 경성대 독서교육문화연구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7. 특이사항

- 현존하는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인 자크 랑시에르, 컨퍼런스 '랑시에르 사유에서의 중심의 불편함' 세션에 참여하여 발제자 · 관객들과 열띤 토론
- 세계적 발터 벤야민 연구가인 영국 랭카스터대 사회학과 교수 그래엄 길록의 컨퍼런스 기조 발제
- 모흐센 마흐말바프를 탐구하는 '모흐센 마흐말바프와 영화의 진리' 세션 개최 및 마흐말바프 감독의 특별 기조 강연
- 올해 첫 시도되는 영화독서포럼은 영화 <명량>과 난중일기,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 독서, 공연이 한자리에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

IX.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1. 기간: 2014년 9월 25일(목) ~ 10월 12일(일) (18일간)
2. 장소: 영화의전당,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등
3. 참가자: 17개국 24명
4. 지도교수진
 - 교장: 벨라 타르(헝가리)
 - 교감: 오석근(대한민국)
 - 연출 지도 교수: 송일곤(한국)
5.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형제> Brother | HD | 10min | Color
 - <귀향> The Return | HD | 15min | Color
 - ② 워크숍 총 6회(연출, 제작, 촬영, 미술, 사운드, 편집)
 - ③ 졸업생 특별 시사 2회(<잘랄의 이야기>, <동물원에서 온 편지>)
 - ④ 마스터클래스 1회(교장 벨라 타르)
 - ⑤ 특강 6회: 프로덕션디자인, DCP 제작,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영화 만들기, 시나리오 작성, 작은 자본으로 영화 만들기, 컬러그레이딩
 - ⑥ 멘토링(교장 멘토링, 연출교수 멘토링)
6. 장학금 수여
 - ① 동서대학교에서 펠로우 2인에게 각각 현금 5백만원 수여
 - ② ㈜디엠라이트; 루모스에서 촬영전공자 2인에게 각각 LED 조명기 1대 수여
 - ③ 뉴욕필름아카데미 장학생 2인에게 뉴욕과 베이징캠퍼스의 4주 영화워크숍 참여 제공